



English

■ 관용어 풀이 ■

요즈음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 오염, 즉 식수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버렸다.

이번호에서는 생존의 기본요소인 물에 대한 오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물과 관련된 관용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To hold water :

(이론등)아귀가 맞다, 빈틈이 없다

직역을 하면 ‘물을 한방울도 새지않게 담고 있다, 소용에 닿는다, 이론적이다, 실리적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관용어의 주어는 ‘계획, 생각, 설명, 토론’등에 한하고 첫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대개의 경우 부정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주어로 되는 ‘계획’은 ‘양동이’이며 ‘계획의 모순’은 ‘양동이에 뚫어진 구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멍이 난 양동이가 쓸모없는 것처럼 계획도 모순투성이면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생각, 계획 또는 설명 등이 모순이 없고 이론이 정연하면 “it will hold water”라고 표현되는 것이다.

이 표현의 역사는 3백년 이상 되었지만 현대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다.

- That crazy idea just won't **hold water**.
(그 어리석은 생각은 전혀 아귀가 맞지 않다.)
- If you want to succeed, you'd better come up with a plan that will **hold water**.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은 물이 샅 틈도 없는 확실한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 None of his arguments seemed to me **to hold water**.
(그의 논쟁은 나에게 하나도 타당할 것 같지 않았다.)

To get one's head above water :

(경제적인)문제를 해결하다

이 관용어는 18세기초부터 쓰여졌는데, ‘문제를 해결하다’ 또는 ‘문제에서 헤어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To be in over one's head’ 나 ‘to be in deep water’는 어떤 종류의 문제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to get one's head above water’는 언제나 경제(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할 때 쓰이고 있다.

- They've been struggling **to get their heads above** ever since business fell off.
(사업이 침체되기 시작한 이래 그들은 난관을 헤어나려고 분투하고 있다.)
- Fred thinks he can **get his head above water** since he got a raise last month.

(Fred는 지난 달 급료가 인상되어 경제적으로 수월해질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 Jones's business fell off seriously, and he had difficulty **keeping his head above water**.

(Jones의 사업은 몹시 악화되어서 빚을 지지 않으려는데 힘이 들었다.)

Of the first water :

(보석이) 최고급의, 일류의, 철저한

이 표현은 본시 한방울의 물처럼 순수한 고순도의 다이아몬드를 표현할 때 쓰는 보석상인의 전문용어였었다.

즉, 'A diamond of the first water'라고 하면 순도가 높은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발전하여 'an artist of the first water' (대단히 뛰어난 예술가) 또는 'a genius of the first water'(비범한 천재)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몹시 재능이 많은 사람을 보석으로 비하여 말하는 이 표현양식이 쓰이기 시작된지는 1백년이 훨씬 넘는다.

- Picasso was artist **of the first water**.
(Picasso는 실로 훌륭한 예술가였다.)
- It would take a genius **of the first water** to understand this book.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비범한 천재 뿐일 것이다.)

To make one's mouth water :

군침을 흘리게 하다, 식욕을 돋구다

이 표현은 4백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놓여있게 되면 군침이 돌 것이다.

이 관용어는 맛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군침이 돌아 '식욕이 난다'라는 경우에 쓰이는 표현이다.

옛날에는 낡은 표현으로 'my teeth are watering'이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mouth watering'이라는 합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형용사로서 '군침을 흘리게 하는'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 The smell of that delicious pizza is **making my mouth water**.
(그 맛있는 pizza 냄새를 맡으니 군침이 돈다.)
- There will be all kinds of **mouth-watering** food at the dinner.
(저녁에는 여러가지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 있을 것이다.)
- The appetizing roast set in the center of the table was enough **to make anyone's mouth water**.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는 먹음직스럽게 구운 고기는 누구에게나 입에 군침을 돌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 보통신용어 해설 ■

- **TSS(Time Sharing System; 시분할처리방식)** : 컴퓨터의 처리시간을 세분하여, 중앙처리장치 및 주변기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단말기를 통해서 공유해 가면서도 마치 자기만이 이 컴퓨터시스템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사용하는 기법을 도입한 형태로 보다 진전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 **VRS(Video Response System ; 화상응답시스템)** : 일본전신전화(NTT)가 1977년부터 실험을 시작하고 있는 대화형 화상정보시스템으로 문자, 도형, 정지화면, 움직이는 화면, 음성 등의 정보를 즉시 꺼낼 수 있는 만능형 시스템이다. 광대역의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INS시대에 실용화를 겨냥하고 있다.
- **Unbundling** : 가격분리, 즉 하드웨어(기계)와 소프트웨어(이용기술)의 가격을 별도로 분리해서 컴퓨터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으로 1970년부터 IBM이 시작했다.